

# 2024년 1학기

## 다문화 정책연구학교 내부평가단 현장 평가

---

1. 일정: 2024년 7월 15일(월) 10:30~11:30
2. 장소: 2층 215호 협의회실
3. 내용: 2024학년도 1차년도 1학기 연구 수행 평가
4. 참석자: 내부 평가단(운영부서 담당자) 4명, 본교 교감 2명, 연구주무, 초등교육부장, 국제교육부장(총 9명)

### 평가1

- 학교 설립 취지의 목표에 따라 학교 운영되고 있음
-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활동을 탄탄하게 다져가는 것이 중요함. 또한 다양한 활동의 그룹화를 통해 체계화하고 일반화 하는게 중요함.
- 운영계획서 상 활동으로도 차고 넘치므로 새롭고, 많은 것을 하려고 되려 교사들이 지치는 상황이 되면 안됨.

### 평가2

- 이 학교의 독특한 프로그램이 투입되고 실험 성과를 내고 있는 과정이 보이며, 이 과정을 묵묵히 진행해야 함.
- 운영계획서 상의 활동 내용은 일반학교와 매우 다른데 계획서의 구조는 일반학교와 같다. 다른 활동을 더 돋보이게 하는 운영계획서의 구조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.
- 운영계획서를 토대로 2가지 강점을 정리해보면
  - 한국어, 이중언어 능력 향상과 바이링구얼 능력 함양
  - 이중언어적 환경 안에서 탐구하고 융합하는 학습, 또한 그러한 교육과정 운영
- 과제1과 과제2의 차별성이 드러나있지 않음. 내년도에는 내용은 그대로 두고, 그룹화 혹은 재구조화 하는 것이 중요할 것
- <내부 평가위원 질문>초중등 통합, 각 학교급별 통합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?

- <연구주무 답변>학교급별로 추구하는 바와 교육과정이 상이하여 통합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다. 단, '하우스'라는 부분에서 초중등이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. 그 안에서 언어, 문화를 공유하고 이주배경학생의 역량을 키울 수 있을 것 같다.
- <내부 평가위원 답변> 각 급별로 통합하려고 힘쓰지 않아도 된다. 추구하는 바가 달라서 너무 힘이 들 것이다. '교과통합' 혹은 '언어'는 연계하여 통합할 수 있지만 급별 통합은 어렵다. 억지로 통합 운영하려고 하지 말아라. 대신 **언어의 연계성**은 고민할 것을 요청한다. 초등단계→중학교단계→고등학교단계 진행을 통해 발전, 성장 과정을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.

### 평가3

- 과정평가(홈페이지) 운영 부분
  - 운영계획서는 탑재되어 있고 그 안에 조직도가 포함되어 있는 상태
  - **조직도를 따로 분리하여 탑재 요청**
- **각 분과별 기여, 각 연구자의 기여도가 보이지 않음.** 자료는 잘 누적되어 있지만 주무만 탑재하고 있는 상태
  - 반드시 **각 분과별로, 각 연구자가** 홈페이지 활동 내용을 정리하여 탑재해야 함(모든 연구학교 참여자 업로드)
  - 연구과제를 실행하면 **어떤 활동이든** 수시로 정리하여 **홈페이지 탑재, 공유(하루에 모든 자료를 업로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때 수시로 자주 업로드 요망)**
  - 주무가 홈페이지 내용을 모두 관리하고 탑재하는 것이 아님. 업무의 배분과 연구자들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안내